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자매결연조인 싱가폴 치과의사회

지난 11월25일 李柱鳳회장 등 6명의 대표단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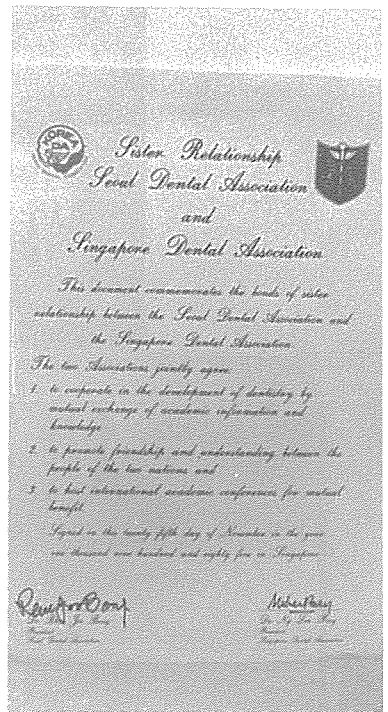


서울齒科醫師會와 싱가포르 치과의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서울치과의사회 李柱鳳회장은 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싱가포르치과의사회가 마련한 조인식에 참석, 「포이」 싱가포르치과의사회장과 함께 조인서에 서명한 후 상호 조인서와 조인패를 교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서울측에서 李柱鳳회장과 鄭相周, 金顯豊부회장, 李炳基공보이사, 崔鍾云 도봉구회장, 李起澤마포구회장 등 6명이, 싱가포르측에서 「포이」회장과 헨베디기前회장, 총무·국제이사, 원로회원, 대학교수등 30여명이 각각 참석했는데 헨베디기 前 싱가포르회장의 개회사와 자매결연 경위 설명이 있은후 李柱鳳서울회장은 『영원한 교류와 우의를 다지자』는 인사말을 했고, 「포이」 싱가포르회장은 환영사에서 『이시간을 위해 전체 싱가포르회원이 1년을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기가 나란히 배열된 가운데 역사적인 서명을 갖고 상호 학술교류와 우의증진에 협력키로 다짐했다.



<자매결연식을 마치고 포이회장과 조인장을 교환하는 이주봉회장>